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남도 출자·출연 연구기관 4곳

1000억 고가 장비 먼지만 쌓인다

광주일보, 정보공개 청구 분석

1년 장비 가동률 10% 미만 많고
사용 수수료 한 푼 못 받기도

전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쓰지도 않는 계속·실형 장비를 고가에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내 관련기업이 없는데도 장비부터 구입한 사례부터 1년 장비 사용률이 1%에 불과하거나 사용수료를 한 푼도 못 받은 장비도 있었다.

매년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 이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들 기관들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일 광주일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의 경우 목포 세라믹센터, 순천 미래사업추진실, 고흥 고분자센터, 순천 신소재센터, 영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장성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등 산하 6개 센터가 453억6300여만원 어치의 장비 140개를 보유하고 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344개 장비를 432억6000여만원에, 녹색에너지연구원 42개 장비를 66억5700여만원에 구매해 운영중이다. 올 연말 개원할 예정인 환경산업진흥원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장비 구입에 나서 45억8200여만원 상당의 36개 장비가 갖춰져 있다.

4개 기관이 지난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모두 562개에, 구매가격만 998억6200만원이다. 이들 고가 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은 전남테크노파크가 64명, 생물산업진흥원 79명, 녹색에너지연구원 30여명 등이다.

그러나 도민 혈세로 구입한 이들 고가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그 가치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장비의 경우 사용빈도가 구입한 뒤 1~2차례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테크노파크 고흥 고분자센터의 경우 4억2800여만원 상당의 계속 장비 '파워힌지시스템'을 지난 2012년 5월 구매한 뒤 1차례 사용하는 등 4개의 장비가 2~4년간 1~2차례 쓰였을 뿐이다. 사용수수료도 받지 않아 사실상 시범 사용된 뒤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된장 담그기 좋은 날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들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지사에서 전통방식으로 담근 메주를 이용해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된장과 고추장은 숙성과정을 거쳐 6월 초에 판매, 배송되며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장비 보유현황

기관	수량	구입비	관리인원	비고
전남테크노파크	140	453억 6300만원	64명	4개 장비 2~4년간 1~2차례 사용
생물산업진흥원	344	432억 6000만원	79명	2014년 가동률 20% 미만 장비 58개(16.9%)
녹색에너지연구원	42	66억 5700만원	30명	42개 장비 중 3년간 수수료 0원 장비 24개(57.1%)
환경산업진흥원	36	45억 8200만원		2015년 내 개원 예정

다. 고분자센터 내 17개 장비 가운데 사용수수료가 '0원'인 장비는 8개로, 수요도 없이 장비만 구입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산하 6개 센터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장비를 운용해 받은 수수료는 54억14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측은 올해 13억원 상당의 '다기능성 조이닝 시스템' 등 53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13개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장비 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와 10%대의 장비가 각각 29개로, 전체 장비의 16.86%에 이

는 58개가 가동률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7억8000여 만원을 주고 산 초고압처리기는 지난해 단 1%의 가동률을 보이는 등 '1% 짜리' 장비도 4개나 됐다. 생물산업진흥원도 올해 6억7000만

전남 섬 응급 헬기 부족
응급구조 '골든타임' 놓칠 우려 ▶6면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불출마
'아름다운 퇴장' ▶14면

원으로 10개 장비를 살 방침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보유하고 있는 42개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장비가 24개 달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는 "자체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들이 직접 사용한 사례가 많고 태양광산업의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이용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올 연말 개원 예정으로 장비 구축중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요금 내리고 속도 올려라”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정치권, 호남선 KTX 대책 촉구

광주시와 전남·북 등 호남권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내달 2일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KTX)의 과도한 요금 책정과 느린 속도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부선보다 높게 책정된 요금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최소 지난 2005년 호남 KTX분기역이 천안에서 충북 오송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운행거리(19km) 요금(4400원)은 할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산~송정간 최대 2시간 7분이 소요되는 느린 KTX의 속도 개선 대책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와 전북도는 16일 국토부를 방문해 “요금은 내리고, 속도는 올려라”는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전남도는 17일 예정된 호남선 KTX시승 후 국토부를 향한 방문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북도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느리고 비싼 호남고속철도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호남민이 KTX 개통에 앞서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가 또 속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 결정 당시 최인기 의원이 국회에서 분기역이 천안 아산역이 아닌 오송역이 되면

거리가 (19km)늘어나 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답변을 통해 “거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호남민들의 추가 요금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다.

1km당 요금을 단순비교해도 호남선 KTX(용산~송정·303.8km)은 154원으로, 경부선(서울~동대구·293.1km) 145원보다 9원이나 비싸다.

KTX 성인기준으로 용산~송정은 4만6800원, 서울~동대구는 4만2500원으로 거리 차이는 10.7km에 불과하지만 요금차는 4300원이나 된다. 코레일은 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용산~송정구간은 고속선(1km당 163.31원)이 많고, 서울~동대구 구간은 기존선 보수 구간(1km당 103.66원)이 많은 탓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동대구 구간이 거리상 더 빨리 도착해야 하지만, 용산~송정 구간보다 8분이나 늦게 도착한다는 게 코레일의 항변이다. 하지만 속도만 놓고 봤을 때 용산~송정간 KTX의 경우 최소 1시간 33분짜리와 최대 2시간 7분짜리 열차 요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간 대비 운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

여야 대표 ‘靑 회동’ 자리서 논의한다

文대표, 5·18대책위에 약속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문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광주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주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외사외국대책위(이하 5·18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층 새정치연합 문 대표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행사에서 공식 제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문 대표가 이 같이 약속했다고 전했다.

5·18대책위는 이날 문 대표 면담에 이어 국회의장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건의서를 전달한 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잇따라 방문,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5·18대책위는 이어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제35주년 5·18 기념행사 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의 시행 등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SIGNIA CREAM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HERERA

*유효성분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선자료교부됨) www.hera.co.kr